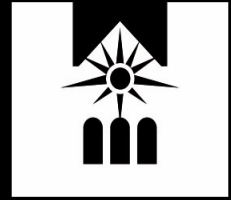




EPIPHANY

CATHOLIC CHURCH

In your neighborhood. In your life.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Wednesday

5:30 - 6:30 pm

TWEN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30, 2020

Monsignor Godfrey Mosley
Pastor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dult Confirmation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or use the registration forms in the vestibul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wen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God forbid, Lord! (Matthew 16:22)

What a stunning reversal! You don't confess someone as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then turn around and scold them (Matthew 16:16)! What could have triggered such a strong reaction from Peter? The news that Jesus was going to "suffer greatly . . . and be killed" by Jerusalem's religious leaders (16:21).

Of course, Peter had the purest of intentions when he rebuked Jesus; he couldn't bear the thought of his beloved Master and friend suffering such a horrible fate.

But there may also have been a deeper motive in Peter's actions. Perhaps he was eager to preserve Jesus' image as an untouchable miracle worker so that he could be safe too. If he could keep Jesus from the cross, he wouldn't have to face his own cross.

Peter had been with Jesus long enough to see that being a disciple meant risking people's scorn and misunderstanding. It meant pouring out his life to God for the sake of the people around him. If Jesus was destined for the cross, then Peter might have to accept a similar fate. Better to shield Jesus from harm so that he could shield himself as well.

But Jesus would have none of it. So he told Peter that anyone who wanted to become like him had to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in his footsteps (Matthew 16:24).

It's tempting to keep Jesus at arm's length so that he can't get too close and ask too much of us. Jesus made it very clear: there is a cost to discipleship. It's not always easy to follow the Lord and obey his commandments. But the glory of knowing Jesus' love and the joy of sharing his mercy with people far outweigh any sacrifice we might have to make. Peter ultimately learned this, and so can we.

So take up your cross today. Try your best to follow in Jesus' path of self-giving love.

"Lord, I don't want to keep you at a distance. Teach me how to give of myself as you did."

Jeremiah 20:7-9

Psalm 63:2-6, 8-9

Romans 12:1-2

The WORD Among Us

**POPE FRANCIS' UNIVERSAL PRAYER
INTENTION FOR AUGUST:**

The Maritime World

We pray for all those who work and live from the sea, among them sailors, fishermen, and their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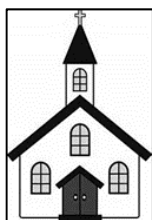
FOR YOUR SAFETY



Please be extremely careful on the uneven brick sidewalk in front of the rectory. Epiphany Catholic Church's service request #19-

00110224 for repair is slated for completion at a date still to be determin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isit 311.dc.gov or call 311 with questions or for additional information.

MAINTENANCE COLLECTION



There will be a second collection NEXT WEEKEND, September 5-6, to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ugust 29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ugust 30 TWEN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7:30 a.m. Special Intention 10:30 a.m. Special Intention
Monday, August 31	7:30 a.m. Soo Jeong An
Tuesday, September 1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	7:30 a.m. Soo Jeong An
Wednesday, September 2	7:30 a.m. Soo Jeong An
Thursday, September 3 St. Gregory the Great	7:30 a.m. † Joseph Caponio
Friday, September 4	7:30 a.m. Soo Jeong An

8월 30일 연중 제22주일 미사 전례

<p>입당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p> <p>제1독서 예레미야서 20,7-9</p> <p>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다.</p> <p>제2독서 로마서 12,1-2</p>	<p>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p> <p>복 음 마태오 16,21-27</p> <p>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p>
--	---

◎ **한국어 미사 재개 안내** 주일 아침 9시 한국어 미사는 9월 6일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미사가 예정된 시기에 재개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미사 차례 지침은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미사 안내** 본당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가톨릭평화방송(cpbc.co.kr/TV/178)에서 동영상 미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평일, 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한영 매일 미사’ 개인 구독 안내** 미사가 중단되어 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본당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북미주한인사목협의회로 연락하시면 개인으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발송 문의 핫라인 번호는 714-315-8862 (텍스트 및 디지털 메세지 전용) 3개월/6개월/12개월 구독 가능합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반 모집** 2020-2021년 예비자 교리반에 참여할 예비신자/견진 예정자를 모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임이 재기될 때까지 온라인 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리신청은 koreanmadonna@hot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8월 지향]

보편 지향 : 삶의 터전인 바다
선원과 어부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일 헌금 및 기부금 안내** 에피파니 성당에 헌금 및 기부금은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에 있는 Online Giving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신자 신구약 성경읽기/구약 필사** 한인 공동체 15주년(2020년) 기념 성경읽기와 구약 필사에 참여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한인 미사가 재개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 진도에 늦어지더라도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읽기 (2020년 8월 30일 ~ 9월 5일)
애가서, 바룩서 / 티모테오 1서

[신령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순교자 성월(9월)]

1. 순교의 의미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 신약성서 중에 사도행전만이 순교의 장면을 묘사하고(사도 7:54-8:1) 순교자의 이름을 전해 주지만 스테파노와 야고보의 순교를 단순히 '없애버림'(anairēdis, 사도 8:1, 12:2) 즉 살해로 표현했을 뿐 순교를 뜻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폴리카르포 주교(150년경)의 설명에서 신앙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순교'가 신약성서에는 말로써 증언하는 것을 가리켰을 뿐이다.

순교는 엄격히 말해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 의하여 초래되어야 하며, 그 죽음을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일찍이 오리제네스는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구세주의 뒤를 따르는 행위를 양심의 순교라 불렀고, 아일랜드의 수도원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애호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를 백색(白色)순교, 고통을 극복하고 속죄하는 행위를 녹색순교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순교는 아니다. 순교는 박해를 계기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박해없이도 가능하다. 그 예로 그리스도교의 정덕(貞德)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당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순교는 죽음에 직면하여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행위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육신을 죽이는 자를 초월하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순교의 목표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그 가치는 최고의 존재자를 긍정하는 일이다. 또 한 인간이 다른 인격을 긍정하는 것은 사랑이므로 순교는 사랑의 행위이다. 이는 신앙의 조문을 증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분을 증거하는 행위이다. 순교하려는 자는 비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음'(필립 1:23) 마음뿐일지라도 순교의 결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순교는 이를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중한 목숨을 구태여 방어하려 들지 않고 기꺼이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순교를 높이 평가하는 그리스도교적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삶의 실재를 증거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순교를 통한 죽음이 성부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순교자의 생명을 일치시킨다는 진리 때문이다. 순교자와 그리스도의 유사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순교자는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빼앗는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성부께 봉헌한다는 확신을 지닌 채 죽음을 맞이한다. 둘째 순교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제로 참여한다. 그래서 교회는 초기시대 이래 순교자를 공경하며 모든 성인의 통공 속에 순교의 의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으로 되새긴다. 이처럼 순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자기를 봉헌하는 행위이며 이

1. 순교자의 의미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 '증인'을 뜻하는 그리스어(mar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증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내용을 보증한다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며(사도 10:41) 스테파노(사도 22:20)와 바울로(사도 22:15)에게 적용되었고 묵시록에서는 예수께서 증인이라 불린다(묵시 1:5, 3:14). 그밖에 묵시록(6:9, 12:17, 19:10)에는 예언자의 신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내는데 위험한 시대에 증언을 한 증인들이(묵시 2:13, 11:3, 17:6) 순교자가 된 것이다.

2세기 중엽부터 교회는 재판소에 끌려가서 말씀의 증언을 하고도 죽지 못한 자들을 증거자(confessores)라 부르고 피로써 증언을 낸 자들을 증인(martyres)이라 불러 양자를 구별하였는데 이는 죽음 자체가 지니는 특수한 의미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순교자를 처음으로 증인이라 부른 것은 폴리카르포주교의 순교전(165년경)에서였다. 여기서 순교자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곧 하느님의 아들의 그것임을 피흘려 증거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110년경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는 스미르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순교자란 피흘려 죽음을 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의 실재성을 입증한다고 하여 예수의 죽음을 부정하는 가현주의자(假顯主義者)들의 주장을 논박하였다. 2세기 말엽 이레네오도 순교자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반 이단론)이라 불렀다. 이와같이 교회는 가현주의를 배격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교회내 순교자들의 특수한 지위를 확인하게 되었다.

순교자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초인적 용기는 순교자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 때문에 가능하다(디오그네토에게 보낸 편지), 순교는 모든 죄를 없애주는 행위이므로 제2의 세례이며(테르툴리아노) 순교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므로 순교자는 죽은 후 바로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알렉산드리아의 글레멘스).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는 순교자는 악의 세력을 쳐 이긴 승리를 증거하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부활을 선포한다(오리제네스). 그러므로 순교자는 완덕(完德)에 이른 자이며 이들로 인하여 역사상 그리스도 교인의 숫자가 놀랍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순교자는 그리스도 교인의 씨앗이다"라고 테르툴리아노가 일찍이 설파하였다.



로써 초대 교회 때부터 순교를 혈세(血洗)라 하였다. 순교는 최상의 은혜요 사랑의 최고 증명일 뿐 아니라 성세성사의 상징을 실재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며 함께 부활하기 때문이다(로마 6:3-11). 순교의 은혜는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가 언제나 당하고 있는 박해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교회헌장 42).